

# 예술로 품어내는 포용과 공감... '그들은 우리가 된다'

이매리 특별초대전...내달 6일까지 예술공간집

3개 섹션 구성...회화·사운드 설치 등 20여점 선봬  
'고려인마을' 모티브로 전 인류 이주사 시각적 확장

'그들은 우리가 된다.' 유발 하라리의 책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에 나오는 문장이다. 이는 '그들'에서 '우리'로 향하는 작가의 시선을 포괄적으로 대변한다.

인류 그리고 자신의 근원에 관한 미술적 탐구를 지속해온 이매리 작가 특별기획초대전 '그들은 우리가 된다'가 다음달 6일까지 예술공간집에서 펼쳐진다.

광주를 터전으로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는 이 작가의 이번 전시는 광주비엔날레 개막 기간에 맞춰 마련됐다. 광주에서 4년 만에 열리는 개인전이기도 하다.

작가에게 광주는 삶의 터전이자 작품 활동의 기반이 된 곳이다. 이러한 광주에 형성된 큰 공동체라 할 수 있는 '고려인 마을'은 이번 전시의 모티브가 됐다.

행정구역상 광산구 월곡2동에 자리한 '고려인마을'은 2004년부터 소수의 고려인이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형성됐다.

가족과 친족 및 지인들이 연쇄 이주하며 7천여명이 군집했고, 현재는 고려인 민족 집거지로 변모했다.

이는 광주 안에 존재하는 가장 국제적인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고려인마을에는 '역사 마을 관광', '동포', '광복', '독립운동', '우크라이나 난민', '세계 고려인 연합' 등으로 구성된 다양한 커뮤니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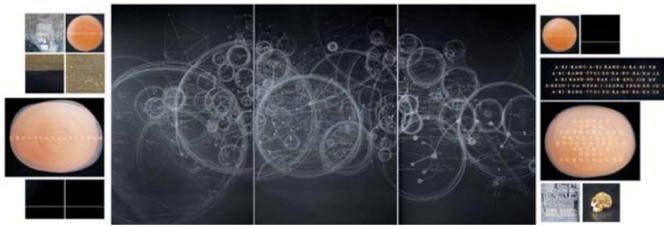
이들의 현재의 삶과 이주의 역사는 작가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민족적 개념 아래 고려인들의 이주사를 살펴보면 전 인류의 이주사가 작가에게 확장돼 다가온 것.

이는 지난 수년 간 작가가 천착해온 주제인 '사배달' 시리즈의 확장적 작업으로 이어졌다.

이번에 선보이는 20여점은 작품의 주 방향이었던 인류학적·사회학적 시각을 더욱 깊이 탐구해 간 결과물이다. 고려인의 이주사에서 비롯된 인류의 이주사와 전쟁사가 엮여 낸 역사의 서사는 새로운 시선과 맥락을 형성한다.

전시는 크게 3개 섹션으로 나뉜다.

먼저 '7천개의 별과 약속의 땅' 작품이다. 고려인 마을에 송출 중인 'GBS고려방송'을



'7천개의 별과 약속의 땅 2024 (시뮬레이션)'



'7천개의 별과 약속의 땅 202402'

활용한 복합 매체 설치 작업으로 회화작품과 함께 사운드, 라디오편성표 등이 한 공간에 자리한다.

이민자들의 성공적인 이민 사회 편입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방송이 이미지와

사운드로 펼쳐지며 관객들에게 색다르게 다가갈 예정이다.

두 번째 섹션은 '이민자의 물건들.....'이다. 작가는 이 작품을 위해 지난 몇 달 간 실제 이주민과 협력하며 작품 속 사물을 수집했다. 익

숙하지 않은 장소에서 기억의 장소를 추억하며, 현실의 낯설을 해소했을 사물들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애환을 다시금 살핀다. 예복, 시계, 수첩 등 한국에서의 사용 가치는 사라졌지만, 한 인간의 기억에 존재하는 소중한 사물을 다시 소환하며 그들의 삶의 역사를 다시 상기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대작인 '시대사적 사건들의 드로잉 Map'을 선보이는 섹션이다.

전시장의 가장 큰 벽면을 차지하는 드로잉 작품으로 시커먼 블랙의 거대한 캔버스 위에 이들의 이주 역사를 시각화했다.

전쟁과 이주의 과정 등으로 일목진 지구



'Poetry Delivery \_ 7천개의 별과 약속의 땅'

라는 행성 안에서 자행되고 벌어진 굴곡진 시대사적 사건들에 대한 Map이 자연스레 드로잉 형식의 작품으로 생성됐다.

이민자들에 대한 개개인의 역사적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한 개인의 삶에 너무도 큰 영향을 준 전쟁사와 인류사적 사건들에 대한 '표기'와 '기록적 방식'이 돋보인다.

이매리 작가는 "광주 '고려인 마을'이 모티브가 된 작품이지만, 그 안에 펼쳐진 인류사와 전쟁사, 이주사를 동시에 입체적으로 펼쳐내 보였다"며 "인류사라는 거대한 흐름 안에서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시각예술로 보여주고자 한다. 내 작품들이 '그들'을 우리로 끌어내는 큰 울림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기자

## 보편적 이주의 경험... '새로운 땅, 오래된 일상'

강윤지 큐레이터 기획...12일까지 오버랩 독립기획전

개인적 경험을 통한 다양한 이주의 형태에 관심을 기울이며 '나'를 지키는 내면에 주목하는 전시가 마련됐다.

독립큐레이터그룹 오버랩의 신진 기획자 첫 독립기획전 '새로운 땅, 오래된 일상'이 오는 12일까지 오버랩(광주 남구 구성로76번안길 5-4)에서 펼쳐진다.

강윤지 큐레이터가 기획을 맡아 김도경 조각가와 협업해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이주하는 삶 속에서 익숙한 일상을 반복하는 현재의 시간적 감각에 대한 사유를 전달한다.

각자가 가진 이주의 경험을 떠올리

며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 습관이나 행동, 의식 등의 루틴을 살펴봄으로써 개인의 존재를 규정하는 요소를 탐구한다.

주요 작품인 '사다리타기'와 함께 오래된 일상의 기억을 소환하는 슬라이드 필름 작업 'step by step\_2009', 'Have something\_2008' 등을 선보인다.

강윤지 기획자는 "현대인 누구나 갖고 있는 보편적 이주의 기억을 상기시키고, 사회 흐름 속의 개인과 사회의 동시대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버랩은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김도경작 'Step by Step'

2명의 신진 기획자를 선정, 6월부터 다양한 과정을 거치며 큐레토리얼 프로그램 진행했다. /최명진기자

## "톡톡 튀는 '광주 예술의거리' 솟품 만들어볼까"

11월1일까지 솟품 영상공모전

'광주 예술의거리'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한 특별한 공모전이 진행된다.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광주미술협회가 주관하는 2024 아시아문화예술활성화거점 프로그램 예술의거리 솟품 영상공모전 '광주아트공방'이다.

'숨은 예술의거리 찾기'를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공모전은 예술의거리 홍보 및 공식 유튜브 활성화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은 광주 예술의거리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는 11월1일 오후 6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공모일 이후 촬영한 예술의거리 풍경이나 사업단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영상(30초에서 90초 미만(1920×1080 픽셀 이상)으로 제작해 개인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후 지원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1편)에는 스마트 태블릿 P C를, 최우수상(2편)에는 스마트 워치, 우수상(3편)에는 무선이어폰



을 수여한다. 수상작은 광주예술의거리 홍보를 위해 활용되며 공모 결과는 11월11일 사업단 공식 홈페이지 (<https://2artstreet.modoo.at/>) 게시 및 개별연락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최명진기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